



## 봉지용 신품종 복숭아

**일** 본 농업연구기관인 과수연구소는 봉지를 씌워 과피의 착색을 억제하여 재배하는 백도용의 신품종(중생) "백추(白秋)"를 육성하였다. 기존품종의 단점을 보완하고 생리적 낙과가 적고 수량이 안정적인 것이 특징이다.

과피의 착색이 적기 때문에 흰색이 뚜렷한 대과 품종이다. 봉지재배의 산지인 오카야마현 등에서 보급이 기대된다. 현재, 품종 등록을 출원중이며, 복숭아 재배는 과피전면을 착색시키는 것이 주류이지만 일부 산지에서는 봉지를 씌워서 착색을 억제하고 백색복숭아를 생산한다. 보급 품종인 청수백도(清水白桃), 백도(白桃)는 5월경에 심한 경우

30~40%의 과일이 생리낙과하고 수량에 커다란 영향을 미친다.

백추는 낙과가 10% 정도로서 수량이 안정되는 것이 특징이다. 연구소의 선발계통에 미국에서 도입계통을 교잡한 실생에서 육성하였다. 과실은 1개가 300~400그램으로 과피의 색은 유백색으로 양광면이 약간 착색하는 정도이다. 봉지재배에서는 거의 착색이 되지 않는 과일을 생산한다.

개화는 오카야마현에서 4월중순, 수확은 8월중순으로 아카츠키보다 10일정도 늦는 중생종이다. 당도는 11~13정도로서, 산미가 적고 맛도 비교적 양호하다고 연구소측은 밝히고 있다.

## 양균 하우스의 가능성

**일** 산화티탄을 하우스의 외장용 자재에 도포하면 식물의 병해를 일으키는 병균을 하우스와의 접촉으로 살균할 수 있다는 것을 가나가와현 농업시험장 농업종합연구소가 조사한 결과 알 수 있었다. 이 연구소에서는 농약을 줄일수 있는 새로운 기술이라고 말하고 있다. 현재 상품화를 위하여 협력기업을 찾고 있는 중이다. 산화티탄은 빛(자외선)에 닿으면 유기물을 분해하거나 살균하는 등의 효과를 나타낸다. 화장실과 욕실의 항균타일 등에도 이용된다.

시험에서는 유리라 경질필름의 폴리에틸에 산화티탄을 도포한다는 것이다. 공기전염하는 토마토 궂양병과 청고병에 대한 살균효과를 조사한 결과 평균적인 태양광을 산화티탄을 바른 유리에 닿으

면 궂양병균은 2시간만에 완전하게 사멸하였다. 산화티탄을 바른 폴리에틸에서는 3시간만에 사멸하였다. 산화티탄을 바르지 않은 경우에는 병원균은 거의 감소하지 않았다. 청고병은 유리에 도포한 쪽에서는 사멸까지 3시간이 걸렸기 때문에 병균에 의해 효과에 변화하는 것을 알았다. 빛의 강도를 높이면 살균효과는 높아졌다.

산화티탄을 바르면 광의 투과율은 약간 저하한다. 유리에서 73%, 폴리에틸 87% 정도가 되었다. 이 연구소의 연구원은 유리, 폴리에틸이외의 자재에도 응용할 수 있는 기술로서 시설원예용 피복자재에 광범위하게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을 시험결과 알 수 있었다.

자료 : 일본농업신문